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마음 광대무변한 걸 진실로 믿어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처이며 또 그대로 세상이 아주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한 찰라의 백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줄을 모릅니다. 전자의 지식자들이 주장자를 들고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월한 것도 없고 초월하지 않은 것도 없으며,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장자로 치는 그것만 봤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항상 굽추리고 굽추리게 살지요. 듣고 보고 행하는 그 세가지 따져 본다면 우리는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놈도 그놈, 크다고 하는 놈도 그놈, 작다고 하는 놈도 그놈, 나와 더불어 상대성에서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도 바로 그놈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놈이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나를 과거 미래 현재로 따져서 말입니다.

법신이니까 스스로 법을 정해서 활용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바깥에 깔리고 부처님한테 빌어야 하고, 또 안되면 부처님 원망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을 내가 한마음으로서 끌어 안으면 어떻습니까? 일체제불을 다 끌어 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삼보에 귀의한다' 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 자성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거니까요. '나'라는 것은 체가 없는 물건 아닌 물건이거든요. 그러니 체는 내 체요, 법은 내 법이요, 불성 즉 종성은 바로 내 종성이죠. 그러니 자성삼보에 귀의하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내가 있으니까 생겼고, 모든 법이나 행하는 것도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일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 믿는 것도 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조차 모두 내 자신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두를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배우는 것도 그 자신이요, 번뇌를 끊는 것도 자신이요, 또는 이루는 것도 자신이요. 귀의하는 것도 자신 아닙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 육근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전부도 그놈이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림·최주현

<화엄경>에도 있듯이 부처님께 어떤 것이 평등한 여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한마음으로 출현했다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평등한 중생들인가를 물었을 때도 그 또한 같이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게 됩니까?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한근에도 없어요. 이론으로만 '너를 먼저 찾아라' 했지 진실로써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모든 걸 타의에서 구하게끔 해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다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배는 게 아닙니다. 불교 역시 그렇구요.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주머니에서 뱅뱅 돌다가 몇 생이나 세세생생을 아야 이 주머니에서 들게 될 겁니다. 사람으로 세번을 얻어주 태어나자 진짜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든 그 살던 습이 있어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 수가 없으니 착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뱀은 뱀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두 살던 습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내세울 게 없다면 자제를 바로 알고 자기가 텅 빈 그 자체이며 그냥 공했다고 생각을 할 때엔 세상법이 그대로 즐겁고 내일 죽든지 금방 죽든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고 또 가정을 망쳐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냐? 집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속속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이끌 때 잘못가는 길도 잡히는 쪽으로 스스로 이끌어 가게 만듭니다. 여기 주인이 있어서 잘하게끔 하는데 왜 잘못잡니까? 그것은 내 주인을 스스로 진실로 믿고 안 믿는데 달려있는 겁니다. 또 진짜 주인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물어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없이 움직여라고 말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송장이요. 의학이든 과학이든 천체물리학이든 철학이든 뭐 어떤 거든 다 그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 없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어디 보셨습니까? 한마음 속에서 분리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거죠. 천차만별로 나누어서 말이죠. 쓰임새에 따라 밖으로 낼 때는 갖가지로 천백억화신으로 나가지만 안으로 들일 때는 한마음으로 들인단 말입니다. 한군데니까. 이해가 갑니까?

보세요. 나조차도 고정된 게 없어서 활라이에 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거수일투족 행하고 돌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보고 듣는 것과 가고 오는 것과 말하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더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만큼, 시공이 초월했다는 언어조차 붙지 않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상대를 건질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아님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했고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뿐입니까? 내 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더불어 같이 살지요. 더불어 같이 수억겁을 통해서 굴러 나왔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이 내 아님이 없이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는데 무엇이 거기에 붙을 게 있습니까? 그냥 돌아가는데, 붙는다는 건 우리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붙고 안붙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밖으로 낼때 천백억 화신 들일때 한마음 삼보 귀의는 자성삼보에 귀의한다는 뜻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화해서 금방 아들로 화하고 금방 남편으로 화하고 금방 형으로 화해서 나뉘다 이겁니다. 금방 변해서 나뉘어서 만질로 바뀐단 얘깁니다. 이렇듯 우리 세상만사 살림살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임금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생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 내가 남자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여자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든지 내가 될 때에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요. 몸통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위가 '내 위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장이 '내 장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척추가 '내 척추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통틀어서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한 몸통이 돼서 살고 있으니 나더 내가 아니다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공(空)했다고 하는 겁니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면서 나뉘는 것이 인간살이요. 이것을 알면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하고 세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업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죠. 내가 했다고 세를 게 없고 내 거다 하고 세를 게 없고 내가 나서서 했다고 세를 게 없는 자체가 바로 한 개체인 것들요. 그래서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하는 것을 다 그냥 통틀어서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것을 왜 그렇게 무시하고 얽매이고 끈질려야 됩니까? 한가지 눈물 나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인생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태워야합니까? 인생이 이 모습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배로 떠 있는데 그 떠있는 배가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다도 없고, 배도 없고, 가고 올이 없고, 그 가고 올이 없는 까닭에 여여하게 가고 올이 없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타의로만 배운다면 이 주머니 속에서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 수가 없고, 이 공기주머니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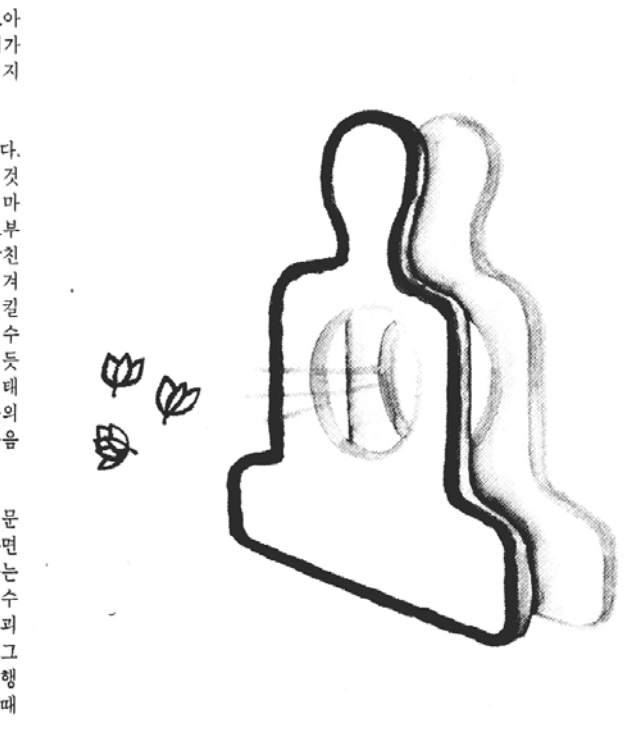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통찰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허여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188

## 자기를 버리면 입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여 녹음테이프가 재생되는 그것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생애 녹음된 것들이 연이어 경계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그것에 일일이 오욕칠정으로 응하다 보면 다음에 다가올 업을 재녹음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다가온 경계 그 자리에서 놓고 친다면 어떻게 될까? 무심하게 경계를 밟고 보내면 녹음테이프를 지우는 것과 같이 공테이프가 되지 않겠는가? 이미 녹음되었던 것은 다가온 경계로서 끝나고 더 이상의 녹음은 없게 될 것이다. 카르마(업)의 법칙엔 예외가 없다. 행위라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개별적으로 사정을 봐주는 일도 없고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없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처럼 행위자에게 되돌아 온다. 행위라는 작용과 결과라는 반작용은 반드시 짝을 이룬다. 홀로 되는 법은 없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와,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와 동전의 앞 뒷면처럼 맞닿아 있다. 그러기에 지금 내게 다가온 모든 경계

는 싫든 좋든 내 행위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 언젠가 내가 짓고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의 결과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길은 없다. 다가온 경계가 아무리 괴롭고 싫은 것이라해도, 또 그것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끓어 오르더라도 그로부터 도망치거나 벗어나는 길은 없다. 닥친 것은 닥친 그대로 제 값을 치루고 넘겨야 한다. 내 것이기에 남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고 남보고 대신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 실사 현실에서 그렇게 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만 다른 형태의 '행위-결과'라는 새로운 카르마의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하다. 이른바 녹음테이프에 덧의뢰 녹음한 것과 같다. 카르마의 법칙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하면 선행을 쌓아야 한다. 그 법칙을 아는 한 선업-선과보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세세생생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이 선행인가? 선행의 기준은 뭐냐? 그것은 때



로는 우리들의 지적능력, 판별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 무엇이 선행인지 잘 모른다해도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이 있다. 말씀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기. 이것은 카르마의 법칙 속에서 삶을 개선하는 최선의 준칙 또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만 한다면 이미 녹음된 것이 무엇이든간에 나의 삶엔 서서히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다.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있다. '비움'이다. 비움은 무엇과도 비견키 어려운 최고단계의 작업이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이 '비움'을 통해 최고의 단계인 부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른바 카르마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경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공메이포와 같다. 카르마의 법칙은 있으나 카르마의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대자유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비움이란 곧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버린다 함은 어떤 행위에 서든 '나'라는 상을 버리는 것이다.

나의 행동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이라는 그 자리에서 '나'를 빼어버리고 다만 행동 그자체로 남는 것이다. 다시말해 나의 행동 느낌 생각에 스스로 묶이지 않음이다. 업이란 스스로 지은 행위 느낌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구속으로써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한다. 이른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 느낌에 자기가 걸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하는 카르마의 법칙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비움은 자기를 버리고 대신 본래의 성품이 발현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카르마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자 함이다. 비움은 구속과 자유의 갈림길이다.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놓고 나갈 때 비로소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져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무심으로 놓고 가게 된다. 비로소 어디에도 걸림없는 도리를 알게되고 함이 없이 하는 도리도 알게 된다."

협찬 : 이 장 옥